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삶

가을호 2011. 11 No.14

묘생역전 | 아기고양이 3총사의 알콩달콩 입양스토리

Animal Watch | 동물실험의 벽을 넘어서는 힘찬 도약, Leaping bunny 레이블을 소개합니다

기획리포트 | 현대판 토사구팽, 사라진 마약탐지견은 어디에?

세상읽기 | 글쟁이의 동물보호운동, 동물책 만들기 5년

INTERVIEW | 생명그릇 7번째 동물보호기획전 생명존중 II, 서로 사랑

현장에서 | TV동물농장, 긴급출동SOS, 남자의 자격...방송프로그램과의 협력 작업을 진행하며

반려동물문화캠페인 _ 14 | 회귀 반려동물 판매,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고 말해주세요!





CONTENTS

1 여는 글

동물보육원 짓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2 묘생역전

아기고양이 3총사의 알콩달콩 입양스토리

4 Animal Photography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 가족

6 Animal Watch

동물실험의 벽을 넘어서는 힘찬 도약, Leaping bunny 레이블을 소개합니다.

8 기획리포트

현대판 토사구팽, 사라진 마약탐지견은 어디에?

10 세상읽기

글쟁이의 동물보호운동, 동물책 만들기 5년

12 INTERVIEW

생명그릇 7번째 동물보호기획전 생명존중 II, 서로 사랑

14 현장에서

TV동물농장, 긴급출동SOS, 남자의 자격, 방송프로그램과의 협력 작업을 진행하며

16 반려동물 문화캠페인 _ 14

희귀 반려동물 판매,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고 말해주세요!

18 활동소식

2011년 8월 ~ 2011년 10월

20 Animal & Culture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22 입양해주세요

모두 떠난 재개발 지역에 홀로 남은 민이

23 포토행당뉴스

별이 된 아이들을 추모하며...

※ 표지사진 촬영 : 포토그래퍼 신승희

사설보호소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2012 달력 판매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동물자유연대 고양이방의 매력 동남이 마리로 모델로 포즈를 취했어요.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동물보육원 짓기,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동물자유연대에 제2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 기존 사무실 근처의 작은 사무실을 빌려서 이슈/캠페인팀과 행정팀이 분가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상근활동가들의 수도 늘고 단체가 구조한 동물들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그동안 사용하던 사무실이 비좁아서 일부 팀들은 분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스갯말을 하자면, 우리가 동물보육원을 지어 행당동 동물들을 이주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쫓겨난 셈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동물자유연대의 동물보육원건립 프로그램을 신뢰해 주셔서 후원 동참이 줄을 잇고 있어, 2012년까지 5억 7천만 원을 모금기로 한 중에 모금을 시작한지 1년 3개월이 된 현재 약 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땅 매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동안 약 25군테의 땅을 소개 받고 기본적인 법률사항을 검토한 후 16개소의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보육원의 입지 조건은 주변 민원을 덜 받아야 하니 민가와 떨어져 있으며 사무국과의 원활한 업무 관계 및 봉사자들과 입양신청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가까운 경기도 내에서 중점적으로 찾아보니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땅에는 여러가지로 분류되는 용도와 법률적인 제한 행위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토지에는 주된 사용 목적이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 밭 또는 논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주택 용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임야 등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어떤 건물이든 다 지을 수 있도록 지정된 땅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그런 땅은 매우 비싸서, 우리 재정 형편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땅은 논, 밭, 임야 종류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임야의 경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개발비용이 차질 땅

값을 맞먹을 만큼 들 수도 있고, 밭을 구입할 경우 농지전용을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농지전용 과정은 개인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나 법인은 취득 절차부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한 이기적인 남비현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희경 | 상임 대표

이 시설물을 짓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터인데, 땅 매입과 정에서부터 이런 난관들이 있으니 어떤 때에는 낙담도 되고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손길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동물들의 호소가 느껴질 때마다 동물보육원 건립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 하는 사람들은 동물자유연대가 구조에 소극적이라고 속덕속덕합니다. 어떤 땐 노골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보되는 동물들을 다 구조한다면 우리 역시 보람을 더 크게 느끼고 자괴감으로 부터도 편안해지겠지요. 그러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전부터 보호해 온 동물들을 안락사하지 않고 생명 다할 때까지 함께 하고 있는 한 동물자유연대의 구조 활동이 위급한 동물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환경적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적 요인을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하여 동물보육원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울 도시에 있는 이 행당동 보육시설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소송이 추진되려 하였으나 내년에 이사 나갈 것이라는 설득으로 소송이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뒤를 모두 살펴봐도 행당동에서만 버틸 여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그 따스한 손을 내밀어주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동물보육원 건립 모금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마없는 하늘아래 동물자유연대로 모였던 아기고양이 3총사의 알콩달콩 입양스토리

윤 정 임 | 반려동물 캠페인 팀장

2011년 봄, 비슷한 시기에 저마다 각각의 사연을 안고 동물자유연대에 입소한 아기고양이 4마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기댈 곳이 없어서인지 유달리 사이가 좋았던 4마리의 아기 천사들...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순수를 제외한 나머지 세 녀석은 들어 온 시기도 비슷했지만 입양 또한 비슷해서 시원섭섭한 마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꼬마들이 이제 얼굴도 뽀족해지고 늘씬하게 늘어난 몸을 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셨죠? 짠~ 이제 그 멋진 모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순수야! 우리 순수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순수를 위한 천사님도 곧 나타나실 거야. ☺

감자 입양자 • 오수희님 인터뷰



어릴 적부터 항상 반려동물과 함께 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동생과 둘이 지내며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픈 마음이 생겼습니다. 분양을 생각하고 있던 중에 트위터를 통해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란 글을 보고 동물을 사려던 생각이 짧았음을 반성하며 그날 바로 유기동물의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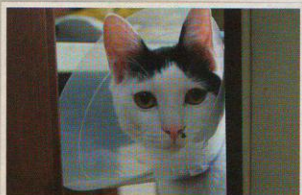
그리고 만나게 된 감자라는 어린 아기 냥이! 아주 조그맣고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아이였죠. 입양신청서를 쓰고 돌아오면서 이 녀석이 꼭 우리 식구가 되기를 바라며 많이 설렸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열흘 후에 드디어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벌써 3개월, 이제 감자는 꼬맹이에서 총각이 되었고, 저희 집은 무엇이든지 감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상한 감자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겨울 추위를 대비해 양변기에 불일 보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변기에 관심을 두던 터이지만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변기 위 모래 화장실에서 불일을 본답니다. 우리 감자는 정말 스마트하기도 하죠.

감자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냥이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누나들은 감자와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늙었다고, 귀찮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없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 동글이 입양자 • 김하나님 인터뷰



일요일 아침이면 늦잠도 자고 싶지만 어김없이 일어나 TV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매회 나오는 유기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사실 처음엔 입양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상처받은 동물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보게 되는 가여운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히는 것이 맘에 걸려 어머니와의 긴 상의 끝에 동물자유연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입양 담당자분과 여러 번의 상의를 통해 '동글이'란 아기 냥이의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동글이가 집에 오던 날, 매표사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밤새도록 구슬피 우는지. 안아서 달래도 보고 놀아도 주고 간식을 줘도 별 소용이 없었지요. 동글이가 다른 고양이들과 잘 지냈다고 하셨는데 혹시 떨어진 친구들이 보고 싶어 그러는 건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원래 키우고 있던 나나가 동글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경계태세를 취하기까지 하며 원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후 다행히도 동글이는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습니다.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무릎에다 심지어 배 위에서 자고 얼굴도 핏아주며 이후로 적응을 잘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화분 넘여트리기, 발가락 물기가 특기인 동글이는 너무 천방지축이라서 고상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동글이에서 왕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름처럼 대접받고 살수 있겠죠!

어느새 왕자와 함께 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마음은 제가 이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었는데 사실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느낌이 듭니다. 왕자와 우리 가족,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참치 입양자 • 정은정님 인터뷰



어느 날, 집 앞에 고양이숍이 생겼어요.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출퇴근길이라 하루에 두 번씩 냥이들과 눈인사를 하다보니 정도 들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겼죠.

분양을 결심했을 때 트위터에서 본 문구가 생각났어요.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라는 문구. 평소 TV에서 동물농장을 즐겨보던 저는 동물자유연대에 입양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새하얀 아기고양이, 참치를 제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참치의 성격상 친해지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살짝 걱정했었는데, 역시나 집에 오자마자 구석에 숨어서 눈이라도 맞추 치면 ~ ~거리며 경계가 심했어요. 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은근슬쩍 제게 안기는데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고 예뻐요.

참치를 입양한 후로 자연스럽게 다른 고양이에게도 관심이 생기고 그 후 돌아보니 집 근처에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전엔 그냥 풍경 속에 있던 고양이들이 지금은 아주 특별하게 보인답니다. 밥도 챙겨주고 눈도 맞추고 하는데, 어쩔 그리 하나같이 이쁜지. 제가 다 데려오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주위에서 제가 고양이 키우는 걸 보고 입양을 많이 결심하시는데 그때마다 유기고양이 입양을 권해 주고 있어요. 집에서 데려오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슴으로 입양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주시으면 좋겠어요. 버려진 고양이, 길 위의 고양이도 다 같은 반려동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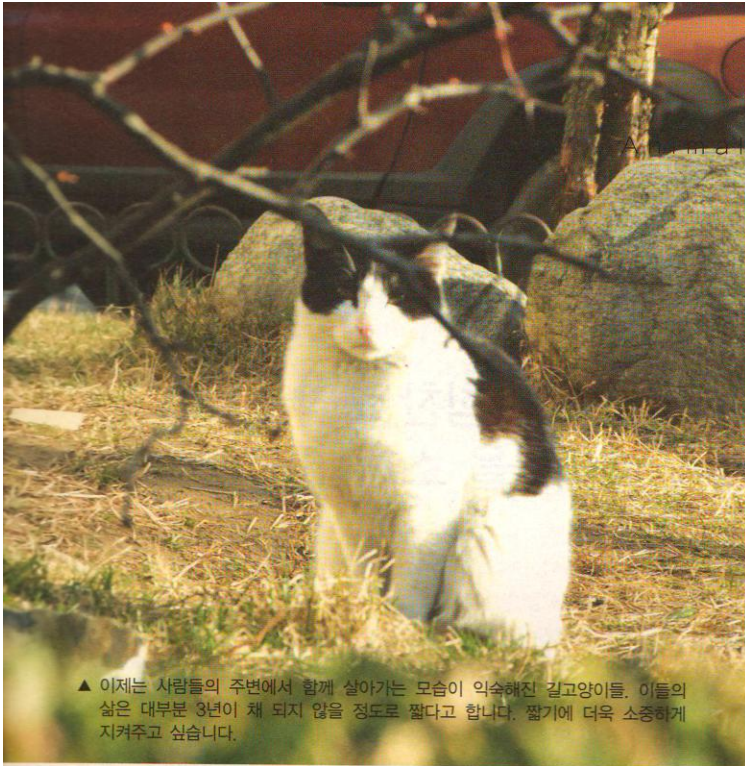
저는 참치로 인해 너무 행복하고, 그전에 참치 없이 어떻게 지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 가족

▲ 하지만 보호막이 되어줄 단단한 벽(집)과 사라짐 없는 고양이들의 운명은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잔인하게도 주웠던 작년의 겨울을 떠올려보면 이 고양이 가족들이 온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당장에 엄습해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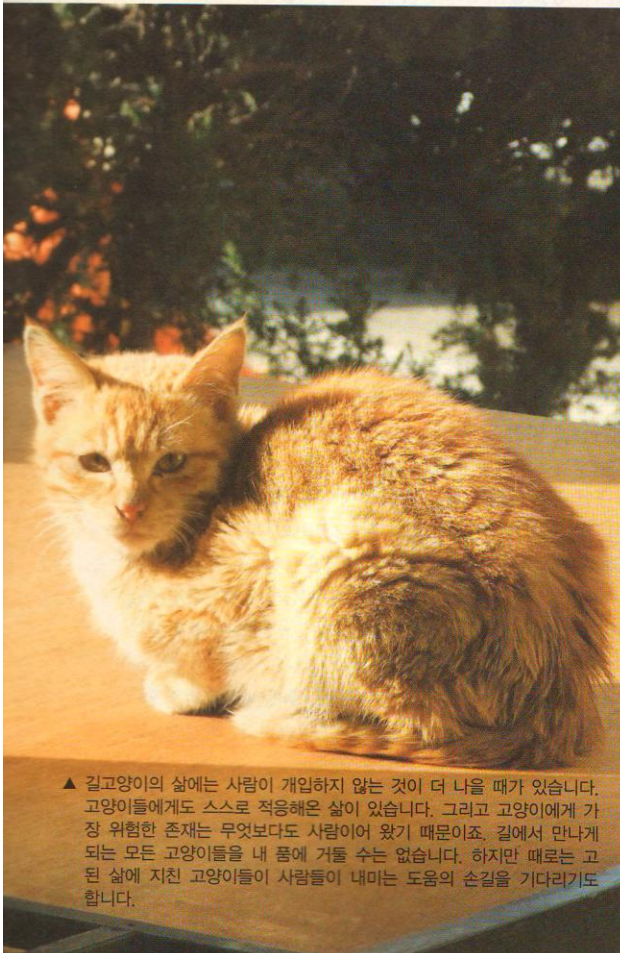
계절이 바뀌어 가는 길목,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잔디밭에 웅기종기 모여있는 길고양이 가족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고양이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나마 그 달콤한 여유를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고양이들이 쉬고 있는 곳은 사람들이 폐가구와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 다.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밥그릇,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을 보아도 동요없이 편안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씨 좋은 주민 몇 분이 이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



▲ 이제는 사람들의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익숙해진 길고양이들. 이들의 삶은 대부분 3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다고 합니다. 짧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 고양이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안전 거리를 두고서, 이들을 살펴봐주세요. 이들에게 다급히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될 수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임시 피난처가 될 수도, 고양이를 미워하는 사람이 던지는 돌을 막아줄 방패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길고양이의 삶에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에게도 스스로 적응해온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여 왔기 때문이죠. 길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양이들을 내 품에 거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된 삶에 지친 고양이들이 사람들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동물실험의 벽을 넘어서는 힘찬 도약, Leaping bunny 레이블을 소개합니다.

이 형 주 | 캠페인 팀장



해마다 전 세계에서는 약 10억 마리의 척추동물이 인간을 위한 실험에 이용된다. 동물실험은 우리가 흔히 동물실험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의료 산업이나 신약 개발은 물론, 대학교, 의과대학, 농장, 군사 시설, 산업 시설,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동물들도 실험용 마우스, 래트, 기니피그 등 설치류부터 파충류, 소, 돼지 등의 가축과 토끼, 개, 고양이, 그리고 영장류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실험 과정에서 당하는 고통과 죽음 외에도 사육 과정에서 오는 공포, 무료한, 외로움,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털을 뽑는 등의 자해 행위나 반복 행동을 하는 등의 행동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이 됩니다.

많은 동물실험들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법적 소송에 대한 방어 수단, 또는 대체실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쓰이는 등 윤리적 고려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몸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은 동물실험을 거쳐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미 인공피부, 컴퓨터 모델링, 인 비트로 (in-vitro) 등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회사들은 이미 안정성이 입증된 원료들만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었으며, 2009년에는 화장품에 쓰이는 원료와 합성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원산지를 막론하고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판매 및 마케팅까지 금지됩니다. 이는 유럽인들이 화장품의 안정성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입증된 원료의 사용과 대체실험법 이용의 활성화로 필요치 않은 동물들의 희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Cruelty Free(잔인성을 배제한)' 혹은 'not tested on animals(동물에게 테스트되지 않은)'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

통 이러한 문구를 부착한 제품은 '완제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은 원료에 대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발언은 "동물실험을 대행하는 업체를 고용해 안정성을 실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화장품과 생활품의 완제품, 원료, 합성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배제한 제품을 인증하는 마크로서 화장품 동물실험에 쓰이는 대표적인 동물인 토끼를 형상을 본뜬 '리핑 버니(Leaping Bunny)' 마크는 1996년 북미주를 대표하는 8개의 동물보호단체가 연합해 창설한 'The Coalition for Consumer Information on Cosmetics(이하 CCIC)'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주 이외의 국가에서는 영국의 대표적인 생체실험 반대 단체인 부아브(British Union for Abolition of Vivisection)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 판매되는 회사들 중에는 더바디샵(The Body shop)을 비롯해 록시땅(L'occitane), 버즈비(Burt's Bee), 더말로지카(Dermalogica), 닥터 브로너스 매직 쉼(Dr. Bronner's Magic Soap), 세븐스 제너레이션(Seventh Generation) 등이 리핑 버니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핑 버니의 인증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단체에서 제공하는 '기준(The Standard)'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고, 지정된 날짜(Fixed cut-off date) 이후로 동물실험을 행한 공급자에게서 원료를 납품 받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입니다. 또한 기업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서명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인증 마크는 세계의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들이 인정한 마크라는 점과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인증 마크 프로그램이라는 점, 동물실험을 하는 회사에서는 원료를 공급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임의적 표기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쓰이는 원료 중 과거에 동물실험을 했던 회사에서 납품하는 원료가 있을지라도 날짜를 지정해 그 이후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에서 만든 원료를 사용하도록 해 앞으로 이루어질 동물실험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6월 16일부터 네 달간 국내 소비자 2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1%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화장품들이 동물실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절대다수인 97.4%가 편별이 쉽게 가능하다면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선호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인증하는 승인 제도가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경제적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제품보다는 생명을 중시하고 환경보호와 사회 환원에 앞장서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투명하게 밝히고,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인간과 동물의 복지 의식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소비 습관을 생활화한다면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동물실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동물과 자연,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



참조 : www.gocrueltyfree.org / www.leapingbunny.org

현대판 토사구팽, 사라진 마약탐지견은 어디에?



민주당 이용섭의원이 지난 9월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의 자연스러운 생태적 본능을 억제 해가며 인간을 위해 마약탐지활동을 했던 개들의 은퇴견·능력저조견들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 기증되었다. 관세청이 이용섭의원실에 답변한 바로는 그 개들은 공혈견으로 약 1년 정도 살다가 외부로 입양되거나 해부용 실습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2008년 부터는 인간을 위해 사육한 동물들은 실험·실습에 이용할 수 없다. 이용하였다면 이는 불법으로써 벌금형의 사안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대학교부속동물병원장인 수의과대학 이병천교수를 만나 관세청 자료와 같이 서울대학교동물 병원에서 마약탐지견을 받은 바 있었는지, 현재 서울대학교에 그 개들이 있는지, 그 개들로 해부실습을 한 바가 있었는지 질의하였는데, 이병천교수는 2011년 3월부터 자신이 원장 직무를 수행한 이후 그런 적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였으며, 그 이전일지라도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거를 대고 이야기 하라고 말 하였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및 동물병원에서 2008년 이후에 관세청으로부터 15마리의 마약탐지견을 양도받은 사실을 답변 받았다. 양도받은 개들 중 9마리는 동물병원에서 환자 개들에게 피를 내어주는 공혈견으로 사용되고 6마리는 수의과대학 교수 및 직원들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였다.

평생 동안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며 인간을 위해 살아 온 마약탐지견을 좁은 공간에 가둬 둔 채 공혈견으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입양 보냈다는 6마리 개의 행방이다. 사라진 6마리의 개는 어디로 갔는가?



▲ 마약 탐지견으로 활동한 맥스. 단속 시 코카인으로 유발된 암으로 9살에 세상을 떠났다.

이병천교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입양에 관여한 교수 4명과 이병천교수와의 관계도

서울대학교에서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4명의 교수와 1명의 수의과대학 직원이 마약탐지견을 입양하였다고 하였다.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찾을 수 없었으나 교수 4명에 대하여서는 어렵지 않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다.

A교수는 이병천교수와 같이 산과학 교수이며 2005년 황우석, 이병천교수가 스니피 복제를 발표할 시 이병천교수가 스니피 탄생의 공을 B교수에게 돌린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진행된 이병천교수의 동물복제 연구에 참여한 관계이다

B교수는 내과학 교수이나 서울대학부속동물병원 원장 재임시 '세포치료 및 동물복제 클리닉'을 개원하였는데 실용화사업을 위해 R업체가 참여되어 있으며 이 업체는 이병천교수팀과 함께 개 복제 사업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C교수는 일반적 검색으로는 이병천교수와와의 관계가 검색되지 않았으나 수의독성학교수이다.

D교수는 이병천교수와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로써 이병천교수와 함께 황우석 사단에서 함께 연구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는 관세청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입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은 입양 목적으로 보낸 바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서울대학교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수의과대학 관계자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입양은 사적 영역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

이병천교수는 황우석교수팀에서 마약탐지견 스니피를 복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사라진 마약탐지견들은 직간접적으로 개 복제에 관계된 교수에게도 입양되었다. 그리고 이병천교수는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동물병원이 마약탐지견을 양도 받은 사실은 솔직하게 밝히지 않았다가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나서야 양도 받은 사실을 통보해주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인간을 위해 사육한 동물은 동물실험이 금지되어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진실의 입, 열어야 한다.

위의 모든 정황들은 마약탐지견들이 동물실험에 이용된 개연성을 털어버릴 수 없는데 입양은 사적 영역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니, 사생활 보호가 불법 가능성 여부에 우선하는 것인가? 서울대학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황우석 사태를 통하여 진실과 윤리성이 결여된 과학이 사회에 어떤 혼란을 끼치는지 이미 큰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생명공학산업이 미래의 블루칩으로 각광받으며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고 때론 윤리적 불감증에 경도되어 있는 모습마저 보여준 바 있다. 동물복제 이면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과 비명에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지, 깊은 반성과 관심을 통해 서울대학교에 진실의 입을 열게 해야 한다. 



글쟁이의 동물보호운동, 동물책 만들기 5년

김 보 경 | 책공장더불어 대표

5년 전 이맘때 동물 책만 출간하는 동물전문 출판사를 시작할 거라는 나의 선언에 출판계 사람들은 거의 험박(?)에 가까운 조언을 했다.

“동물 책만 낸다고?

짐승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 안 읽어.

100% 망해!”

10년 동안 잡지 기자 생활을 하며 글만 써오던 내가 전혀 모르는 출판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는데 이런 조언을 듣자 다리가 썩었다. 정말 하면 안 될까?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면 발동하는 나의 무모함이 여지 없이 고개를 들었고, 무엇보다 내게는 내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100% 지지를 보내는 영원한 내 편이 있었다.

“언니, 하고 싶은 일을 해. 나는 늘 언니 편이라고.”

13살이 된 반려견 정이가 옆에서 나를 거들었다. 정이가 보여주는 찬성의 꼬리 흔들기에 힘을 얻어 덜컥 출판사 문을 열었다.

100% 망한다는 살 떨리는 조언 속에 시작한 동물 전문 출판사.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있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다. 단군 이래 최고의 출판계 불황이라는 이때에(사실 출판계는 불황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 야말로 선전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약자인 반려동물의 동지가 되고 싶은 출판사

우리 출판사의 첫 책 ‘동물과 이야기하는 여자’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책이다. 당시 우리 집 개가 원인 모를 병과 사고로 잇따라 우리 곁을 떠났고 그 나이까지 살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너무 커 치유가 필요했다. 그때 언젠가 TV에서 봤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생각났고 그에게 상담을 요청해 떠난 개와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떤 일이든 먼저 책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성격이라 그의 책을 주문했고, 태평양을 건너온 책을 받아 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다.

정기와 살면서 녀석들의 마음을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동물들의 감정이 그토록 넓고 깊을 줄 몰랐고, 배려심과 창피함 등 사회적 감정까지 가진 그들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저자가 들려주는 무지개다리를 건넌 동물 영혼과 나눈 대화는 막 동물 가족을 떠나보낸 내게 큰 위로와 선물이 되었다.

그래서 덜컥 출판사를 등록하고 첫 책을 냈지만 내가 혼자 감동하고 있다고 책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출판사의 목표를 ‘망하지 말자!’로 정했으니 우선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다. 동물 책만 냈다가는 100% 망한다고 내게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살아남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책을 어떻게 팔지?

그때 내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동물이웃들 밖에 없었다. 가입해 활동하던 동물 관련 카페에 책 출간 소식을 알렸고, 블로그를 만들어 반려인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내가 느

긴 감동에 동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과 살아본 반려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내 기대는 적중했다.

반려동물과 살며 느꼈던 소중한 감정, 아이를 무지개 너머로 보내고 느끼는 슬픔, 유기동물이 넘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 등을 느끼던 반려인들이 소통의 장을 찾아 모여들었다. 이렇게 동물 이웃들이 모이자 나는 더 이상 '1인 출판 독립군'이 아니고 '동물사랑 연합군'이었다. 이웃들은 표지 선정도 돕고, 책 발간 소식을 카페와 블로그로 나르고, 앞으로 어떤 책이 나오면 좋을지 조언도 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늘 책공장더불어의 책은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독자들과, 동물이웃들과 더불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한다.

우리 출판사 책의 주제는 늘 독자들로부터 나온다. 임신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키우던 개를 버리라고 한다고 어쩌면 좋겠느냐는 도움을 요청하고, 아이를 무지개다리로 떠나보냈는데 유난을 떤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두려워 그 슬픔을 속으로 삭이고 있어 힘들다고 괴로움을 토로하는 이웃들을 보며 책을 기획하고 만들었다. 그래서 책의 도움으로 출산을 하고도 개, 고양이를 버리지 않고 아기와 함께 잘 키우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들을 때, 책을 읽고 반려동물을 무지개너머로 잘 떠나보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들을 때 가장 감사하다. 이렇게 늘 우리 출판사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로 머물러 있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든든한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린' 재생지 사용에 선뜻 동의해주는 선량한 독자들

우리 출판사가 동물 관련 책만 내는 고집을 부리는 것과 더불어 고집을 부리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재생지 사용이다. 출판사를 시작하고 내 손으로 종이를 발주하게 되자 '이 순간 나무가 잘리는 거잖아?'라고 생각하니 맨 정신에 재생지가 아닌 종이를 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재생지 사용은 녹록지 않다. 인쇄소, 지류업체, 디자이너로부터 "꼭 이 종이를 써야 돼요?"라는 볼멘소리도 많이 들었고, 독자의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종이를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1,2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려 나가고, 그중 제지 산업은 전체의 42%를 소비한다. 제지 산업이 숲 파괴의 주범인 것이다.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는 원시림을 베고 그 자리에 성장이 빠른 단일 수목을 키우는 나무농장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다. 숲이 살아야 동물도 살고, 생물 다양성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판매량 미비한 우리 출판사가 재생지를 사용한다고 얼마나 많은 나무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그루의 나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대만족이다.

종종 재생지를 사용한 우리 출판사의 책에 대해 '후지다, 구리다'라는 댓글을 다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다. 그럴 때마다 직접 찾아가 재생지 사용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 모든 독자들은 금세 우리 출판사를 응원하는 후원자가 되어준다. 아마도 동물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라서 그런 모양이다. 우리 출판사는 그런 든든한 독자들에게 힘을 얻고 또 나아간다.

출판사를 시작하며 정한 목표는 '망하지 말자', 단기 목표는 '10권 낼 때까지 망하지 말자' 였는데, 고맙게도 얼마 전 11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일단 단기 목표는 이룬 셈이고, 거기에는 동물 사랑과 생명 사랑에 동의해주는 동물이웃들의 응원이 컸다. 앞으로 우리 출판사는 조금 더 관심의 폭을 확대해 동물원의 동물, 농장 동물 문제에 대한 책을 기획하고 낼 것이다.

이렇게 관심의 폭을 넓혀가는 데에는 5년 전 출판사를 열 때와 다름없이 내 옆을 지키는 18살 노견 정이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조금씩 책의 주제를 동물권 문제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정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는 찬성의 꼬리를 흔들 기력을 잃은 녀석이 눈빛으로 대답한다.

"언니, 세상의 약하고 고통 받는 동물들을 위해 일을 해줘. 알겠지만 무슨 일을 해도 난 언니 편이라고." 

INTERVIEW

생명그릇 7번째 동물보호기획전 생명존중Ⅱ, 서로 사랑

예술을 통해 소외된 생명과 함께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작지만 즐거운 일이라 생각

함께 나누는 삶_성북동 갤러리 김수연 관장

이 정 애 | 리포터

지난 10월 2~16일 성북동 갤러리에서는 동물보호 기획전 '서로 사랑(Love one another)'이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생명그릇' 회원들의 사진, 금속, 도예, 퀼트 작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된 작품이나 기타 소품들은 전시기간 동안 바자회를 통해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에 기부하며 소외된 어린이들의 지원 및 유기동물 지원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처음 시작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동물을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성북동 갤러리의 김수연 관장은 2004년 갤러리를 열기 전부터 유기견을 키웠었고, 한 마리 두 마리 하던 것이 지금은 17마리가 되었다고 한다. 동네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자연스럽게 동물을 키우면서 동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예를 배우면서 일반인에게 도예에 대해 알리고 여기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 반려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접목시켜 전시회를 열게 된 것이 2004년 2월에 연 '생명그릇' 창립전이였다. 이 전시회를 시작으로 지금 7회 전시회인 '서로 사랑' 전이다.

"성북동 갤러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갤러리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고, 나누고,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사랑방 같은 곳이지요."

김수연 관장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환경에 처하게 되면 너도, 나도 모두 어려운 이웃이 되는 것이라며 성북동 갤러리가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한다.





성북동 갤러리에서는 동물보호 기획전뿐 아니라 장애인 전시, 어린이 마음전, 스승과 제자전, 최근까지는 기독교 성물전을 열어왔다. 이들 모두 전문 작가도 물론 있겠지만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나누는 자리인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좋은 일에 쓰인다.

“어린이 마음전은 가까운 학교 아이들이 직접 선생님과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해요. 사실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수익금으로 쌀을 사서 마을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 드리고 와요.”

지하 1층 전시장에서는 음악회도 열린다. 연주자들이 무료로 동네 분들이나 음악을 듣고 싶은 분들에게 편안하게 음악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으로 만들어 준다.

“2006년 생명그릇 창립전의 컨셉트는 ‘발렌타인 데이’였어요. 발렌타인 데이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저희는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전시회를 열었어요.”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 8월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더불어 자연환경에 대한 고마움도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애어컨도 켜지 않고 땀을 흘리며 전시회를 열었다고 했다.

동물보호 기획전을 열고 있는 ‘생명그릇’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갖고 있는 예술가,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뜻과 재능을 담고 있는 모임이다.

“생명그릇에 가입하는 데는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시던 분이 있으셨는데, 우리 집 강아지를 관심 있게 보시던 분이었죠. 알고 보니 강아지들을 훈련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시간 나실 때마다 우리 집 강아지를 데리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다녀주시고 하세요. 이처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은 분이려면 누구든 가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김수연 관장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오셔서 돕는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소외된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년 10월에 열리는 전시회 때에는 입소문도 많이 내고, 바자회 때에는 누구나 지나가다가도 멈춰 서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작은 기대도 내비쳤다. 그만큼 동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래 생명그릇전은 10월 중순에 열었었어요. 요즘은 10월 초에 전시회를 여는데요. 기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명 존중과 더불어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도 있거든요.”

김수연 관장은 전시회 홍보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회원분들 중에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전시회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서로 사랑’전을 마치고 난 후 다음 전시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김수연 관장이 수줍게 웃는다. ☺



■ 현장에서

TV동물농장, 긴급출동SOS, 남자의 자격...

방송프로그램과의 협력 작업을 진행하며

윤 정 임 | 반려동물캠페인 팀장

지난 2010년 12월,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이던 갸돌이, 태양이, 담비, 고미, 덕구, 투투, 제제가 혹한의 추위를 앞두고 모두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입양이 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 갸돌이의 입양은 5년 만에 성사 된 것이라 그 기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녀석들을 시작으로 비슷한 시기에 구조되어 들어 온 12마리 요크셔테리어 아가들의 입양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입양성공률이 높지 않은 혼혈견들의 입양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그 동안 닦아 온 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 캠페인 및 유기동물에 대한 높아진 시민들의 의식도 있었으나 KBS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올 해 6월에는 TV동물농장을 통해 입양을 알리는 소개가 나갔던 시추 풍식이 2년만에 주인을 찾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사무실 마당에 들어 와 있던 풍식을 당연히 주인이 버리고 간 것

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SBS TV동물농장 제작팀과 3년째 동물학대 현장 출동과 구조 협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발생과 구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명절을 앞두고, 또는 잠에 빠져 있는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다급한 연락이 오면 언제나 달려 나갑니다. 과연 제보 속의 녀석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치료는 가능할 것인가...오만가지 생각과 걱정으로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촬영팀들은 그 짧은 시간동안 동물들의 상태 및 동선을 꼼꼼히 파악 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자유연대 팀이 도착하면 가장 안전한 접근 방향을 세우고 구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 된 녀석들이 동물자유연대에서 보호 중인 북한산, 영종도 개들과 울릉이, 오층이, 진진이와 당당이, 부들이와 살랑이 등 다수입니다.

최근 들어 모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글들과 항의로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방송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방송에 관해서는 프로이지만 동물에 관해서는 프로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단체 출신의 피디나 촬영팀이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다. 또한 방송은 동물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다가가야 하고 프로그램 폐지에 대한 압박감도 크기 때문에 재미와 긴박감, 흥미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구조를 진행하면서 저희와도 의견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과하다 싶은 구조계획을 세워 그것을 전면 수정요청 하는 등 답답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쇼라고 하기 보다는

◀ 동물학대 사건은 언제나 예고없이 발생합니다. 한 건의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상황에 따라 여러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은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 잔인한 학대로 한 쪽 눈을 잃고,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찐자. 지난 여름 TV 동물농장을 통해 구조 스토리가 방송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말로 잘 몰라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컸습니다. 동물농장 제작팀은 전문 동물구조팀도 아니며 동물학대 해결팀도 아닙니다. 동물농장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그저 방송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구조 또한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지 않는 한 구조한 동물을 동물단체나 동물병원을 통해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활동 중 하나로 방송협조를 하는 동물단체는 이미 많은 동물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받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간혹 동물농장 게시판을 보면 동물을 구조해 달라는 아우성이 도가 지나칠만큼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왜 구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외면하고 싶겠습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열악한 동물복지와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는 정책.. 갈 길은 멀고 험난한데 무조건 구조만 하면 정체가되어 쌓이기만 하는 동물들의 남은 삶은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 우리 이웃들 중에는 유기동물과 동물학대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정보부족으로 그 심각성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활동은 이미 동물보호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인터넷과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입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가 협조해 온 방

송 프로그램들은 이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었습니다.

방송에서 동물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주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이며 희망적입니다. 당장 눈앞의 거부감으로 비난부터 하기 전에 앞으로 얼마를 더 나아가야 하고 얼마나 많이 변화시켜야 할지 그 장기적인 발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의 힘으로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곧 KBS와 동물자유연대가 협력한 유기동물입양프로젝트가 방송을 타게 됩니다. 이러한 방송 하나로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끈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 2m 높이의 농수로에 버려진 당당이, 진진이 자매의 사연도 TV동물농장을 통해 제보가 접수되어 함께 구조작업에 나선 경우.



희귀 반려동물 판매,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고 말해주세요!

◀ 최근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구아나. 대부분 몸의 크기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인 어린 상태에서 판매되지만 성체가 되었을 때의 몸 길이는 1m를 훌쩍 넘게 됩니다.

박연주 | 캠페인 팀장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희귀 반려동물의 판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희귀 반려동물 수입 규모는 284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되어 오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수의 외래종 동물들이 이미 국내에 유입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희귀동물' 대량 사육 업자들까지 등장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래종 동물의 마구잡이식 포획과 유통은 무엇보다도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반려동물로서 판매되고 있는 희귀동물 중 상당수는 열대우림, 아프리카 초원과 같이 환경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입니다. 야생에서의 생물종 감소로 인한 먹이 사슬의 파괴는 지역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희귀동물들은 돌보는 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키울 때는 좁은 장소에 감금해둘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타고난 습성과 생존에 적합한 기후나 습도, 먹이 공급 등의 환경 조건을 충족시켜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희귀 반려동물 대부분은 자연에서 포획된 외래종 야생동물입니다. 여기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에 등록되어 국제적인 거래가 금지된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동물을 키우고



▲ 모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비어드드래곤. 주책가 대형마트 매장에도 고가의 희귀종 동물 1~2마리씩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물체험전에 전시 중인 페릿을 안고 있는 어린이.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성행하고 있는 각종 희귀동물 전시장과 체험관들은 특이한 동물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을 부채질하며, 이것이 충동적인 동물 구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외래종 희귀 동물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서식지로부터 운송되어 오는 중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에 의하여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양불균형,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이상 증세를 보이는 희귀동물들이 많지만,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수의사들이 거의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희귀동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판매되고 있는 외래종 야생동물들이 인수 공통전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원숭이 천연두에 감염된 프레리도그가 이를 인체에도 전염시킨 사례가 발생하면서, 프레리도그의 국내 판매 및 수입, 유통이 전면 금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환경 조건이 생물학적 욕구를 거의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작은 동물이라면 문제가 없을까요?

대개 크기가 작은 동물이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들 동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동물이라고 해서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경 조건 관리나 먹이 공급은 큰 동물 못지않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희귀 동물들도 판매 시점에서는 아주 어린 새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동물들이 자라서 성체가 되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관리에 드는 비용과 병원비 등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많은 양육자들이 이들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야외에 방사하거나 방치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최근 유기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웹사이트를 검색해보면 페릿, 이구아나와 같은 동물들이 유기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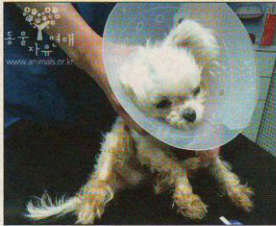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희귀 동물 판매, 이대로 그냥 두고 보아야만 할까요?

이런 식의 동물 판매가 더 이상 당연한 판매 형태로 자리잡지 않도록, 더 나아가 이런 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 어떠한 판매 형태를 통해서든 외래종 희귀동물을 구입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동물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교육용 내세운 희귀동물 전시회와 체험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동물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러한 동물 구입을 부추기는 희귀동물전과 체험전에 돈을 지불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전시와 행사를 목격하셨을 경우 주최 측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는 주요 도시의 주택가마다 들어선 대형마트 매장이 희귀 동물 판매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매장에서의 희귀 동물 판매에도 항의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소식

»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국회 공청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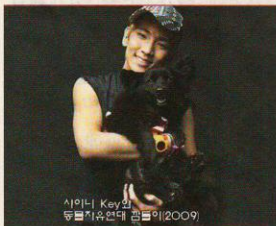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 부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반려동물 치료 부가가치세 부과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 공중보건 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진료와 사회소외계층의 반려동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예고되는 문제들을 동물보호단체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맹인안내견 등 특수견 진료, 예방 접종비 등 일부 항목들로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국회 공청회에 우리 단체와 카라가 참여하여 동물보호단체로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하프물범 지키기에 함께 하는 아이폰 전용 게임 '플러피 다이버' 출시



게임 개발업체 핫독 스튜디오에서 캐나다 하프물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스마트폰 게임 '플러피 다이버(Fluffy Diver)'로 동물자유연대의 하프 물범 보호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지난 10월 출시된 플러피 다이버는 아이폰 전용 게임으로 국내 및 해외 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임 수익금의 일부는 우리 단체의 하프 물범 캠페인에 일부 기부됩니다. 게임 속의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동물자유연대 하프 물범 보호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 그룹 '샤이니' 멤버 Key 팬클럽 <키보드> 보호소 건립 기금에 기부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Key 팬클럽 '키보드'에서 해피빈콩 모금 금액 230만원을 우리 단체 동물보육원 짓기에 기부해주셨습니다. 팬클럽 '키보드'에서는 매년 Key 생일 기념 모금을 실시하여 여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Key는 우리 단체 김현성 이사님을 통하여 2009년 우리 단체의 반려동물 사진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동물자유연대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뜻깊은 기부금을 전달해준 팬클럽 키보드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농장동물 복지정책 토론회 참여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농장동물 복지 정책 토론회가 9월 29일 열렸습니다. 2009년부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주도하고, 우리 단체도 참여한 동물복지 인증 기준 가이드라인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와 같이 동물복지 인증 운영 방향과 실제 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나 컨퍼런스 개최 소식도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산란계 농장의 동물 복지 인증이 내년도 실시를 목표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걀 구입 시 동물복지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해주세요.

» 고 김종현 소방관 부의금 전달

지난 7월 건물 옥상에 고립된 고양이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추락사한 속초 소방서 소속故 김종현 소방관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큰 슬픔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이를 계기로 동물 구조 업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식 전환과 더불어, 엄연히 업무 중 순직한 김종현 소방관의 국립 묘지 안장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진행하는 한편, 1주일간 김종현 소방관 부의금 모금을 함께 했습니다. 모금된 5백만원의 성금은 9월 20일 속초 소방서에서 유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울산 남구청 길고양이 포획 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항의

9월 15일 울산 남구청에서 길고양이 포획 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450 여건의 항의 민원이 접수된 후 남구청 측의 사실 정정 보도가 이어졌으나, 공공기관의 TNR 사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난 2008년 진행한 고양이 TNR 조사를 보완하여 일반 대중과 각 지자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한 길고양이 TNR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움 주실 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망치로 개(복남이)를 죽이려 한 가해자 동물보호법 위반 벌금 100만원 구형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망치로 개를 죽이려 한 노인들(지난 4월 망치로 맞아 죽을 뻔한 복남이 사연으로 소개)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된 결과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가해자 노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보하신 분이 곳곳하게 대응해 주신 결과 피해견들을 구조하고 가해자들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이 아직은 미약한 상태이지만 이러한 판례의 축적으로 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동물학대 목격 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세요.



» 배우 윤승아와 나일론 미디어가 함께 한 유기동물 돕기 바자회

패션 매거진 나일론과 배우 윤승아씨가 함께 진행한 유기동물 돕기 자선바자회가 지난 8월 27일 카페 GRR(그르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윤승아씨는 평소에도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일론 미디어에서 제작한 캠페인 홍보 동영상에는 윤승아씨와 4명의 바자회 참여 디자이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단체 개들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나일론 미디어에서는 바자회 수익금 중 2백만원을 우리 단체 동물 보육원 건립 기금에 기부해주셨습니다.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동물의 마음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소설 두 권을 소개합니다.

넌 동물이야, 비스코비츠!

알레산드로 보파 저 | 이승수 역 | 민음사



춤추는 돼지, 채식주의자 사자, 시궁창에서의 삶을 꿈꾸는 실험실의 쥐 등 이 책의 주인공 비스코비츠는 20개로 구성된 챕터마다 매번 다른 동물로 등장합니다. 저자 알레산드로 보파는 생물학을 전공한 이력을 십분 발휘하여 다양한 동물들이 지닌 습성을 바탕으로 인간성이 지닌 여러 모순적 측면과 약점을 지적합니다. 다소 우스꽝스럽게 마무리되는 각 챕터의 결말은 이야기 전반부에 가볍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적으로 그려진 동물들의 삶에 드리워진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 속 동물들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음을 느낍니다. 동물의 습성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나 인간의 습성을 통해 동물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매우 설득력있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의 삶이 인간의 삶과 닮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바로 동물이기 때문 아닐까요? 이 점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동물의 감정과 행동, 고통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넌 동물이야, 비스코비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점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동물애호가를 위한 잔혹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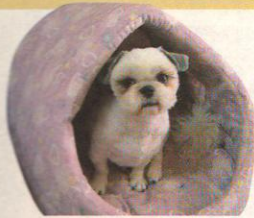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저 | 민승남 역 | 민음사



‘인간에게 학대당한 동물들이 일어나 복수를 감행한다’

학대당하는 동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한번쯤 마음 속 깊이 그려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동물들이 일단 복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결코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13마리의 동물들은 돈벌이의 도구로, 혹은 짓궂은 장난에 의해,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들에게 온갖 학대를 당합니다. 견디다 못한 동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주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잔인한 인간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동물들은 온화하고 사랑에 넘치는 인간들을 만나 안식을 찾습니다.

책의 저자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알랭 들롱 주연의 영화로 유명한 <태양은 가득히>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작가로,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동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투쟁적인 어휘와 상황 설정 속에서 동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림과 동시에 희망과 평화를 역설합니다. 결국 동물과 인간은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결국 평화로운 공존 속에 살아가야 하니까요.



위기의 동물들에게 피난처를!

동물보호소 건립 모금 중간보고

여러분의 후원을 바탕으로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보호소 짓기' 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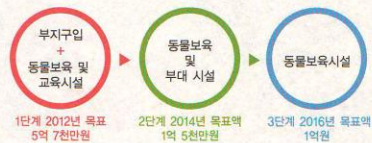
A. 종잣돈 50,000,000원 마련

B. 보호소 건립 모금 - 함께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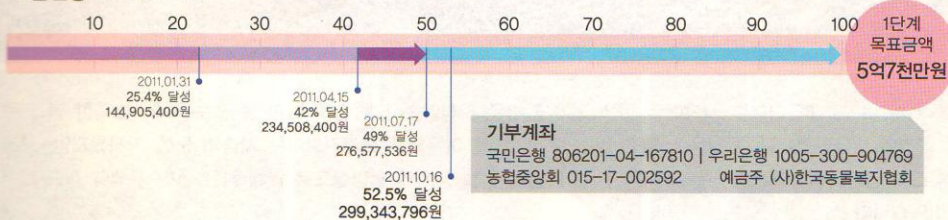
- 맞들기 후원 : 1구좌 5만원
- 땅한평 후원 : 1구좌 30만원
- 한달음 후원 : 1구좌 100만원, 1,000만원 그 이상도 좋아요.

C. 보호소 건립 예상비 : 목표액 8억 2천만원

D. 동물 수용 능력 : 상시 213마리 (3개동, 개 141마리, 고양이 72마리).
연간 300마리 이상 예상(구조, 입양, 사망 순환)



모금현황 (2011.10.16 현재)



기부계좌

국민은행 806201-04-167810 | 우리은행 1005-300-904769
농협중앙회 015-17-002592 | 예금주 (사)한국동물복지협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18일부터 10월 16일 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명단 기재는 가나다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전체 후원자 명단과 내역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살림공개 게시판에 고지됩니다.

- ♥ 김정하 회원님께서 5,000,000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 반려동물용품 전문쇼핑몰 루이독에서 사랑의 경매 행사를 통해 모은 수익금 3,604,000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 패션 매거진 나일론 미디어에서 배우 윤승아씨와 함께 진행한 유기동물 돕기 자선 바자회 수익금 중 2,000,000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한달음 후원

나일론 미디어+윤승아, 루이독, 바네하임 김정하,
이정희 소아과, 조수미, 조희선

땅한평 후원

김정민, 세씨 팝업갤러리 행사 수익금, 안&루이, 이현주, 임보옥, 장미,
최용희, 황준현

맞들기 후원

ZPM조호판클럽, 강미연, 강승혜, 강지은, 구유진, 권순옥, 권유미, 권지원, 금혜원, 기부, 김대수, 김대수, 김명이, 김보미, 김보미, 김선화, 김세진, 김소형, 김수정, 김아람, 김애린, 김인교, 김정애, 김지원, 김지혜, 김진영, 김한나, 김향, 김혜자, 김혜정, 노주희, 동물보호소후원, 동물보호소후원, 동물보호소후원, 동물자유연대, 돌이구나, 마리, 목경은, 박경화, 박기덕, 박기화, 박수연, 박순영, 박순옥, 박지현, 박지현, 박지현, 박대순, 박혜림, 박혜진, 반재현, 변지영, 보리, 보호소건립금, 보호소후원, 보호소후원금, 서경진-LENAXU, 승현정숙, 신경아, 신근영, 안환희, 양은주, 염수진, 염영숙, 오민희, 오수진, 오수진, 오수진, 오윤진, 원선화, 원선화, 유영숙, 유미현, 유소이, 유재숙, 유준희, 유지현, 윤덕가, 윤정원, 윤지영, 이새롬, 이선미, 이선미, 이시윤, 이연규, 이연규, 이연규, 이윤희, 이윤미, 이은미, 이인철, 이주희, 이지유, 이지은, 이춘우, 이현숙(현파), 임미연, 임보람, 장재명, 장재명, 장재명, 장재숙, 전영미, 전영희, 전영희, 정미나, 정성훈, 정승원, 정지윤, 정지현, 정혜숙, 조아라, 조유민, 조하영, 조해진, 주영, 최경미, 최고은, 최고은, 최고은, 최란숙, 최순미, 최안희, 최주식, 최지혜, 추나경, 파이팅, 한숙진, happytori

입양해 주세요

모두가 떠난 재개발 지역에 홀로 남겨졌던 민이

- 이름 : 민 (발바리)
- 나이 : 10년 추정, 약 3kg
- 성별 : 암컷
- 기타건강상태 : 심장사상충 치료 중, 율니 모두 발치, 중성화 수술 예정

민이를 처음 보았을 때 어여쁜 사막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나 싶었습니다. 갈색 털과 쪽긋 솜은 귀, 뾰족한 턱과 큰 눈이 꼭 한 마리의 여우같았지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큰 두 눈은 여우의 눈이라기보다는 사슴의 눈에 가까웠지만. 구조 당시 2kg이 조금 넘는 아주 마르고 작은 아이였던 민이. 뭉쳐진 털 뭉치와 영양실조로 인해 굵은 등이 무척할 정도로 아주 예쁜 아이였습니다.

민이는 마포구 재개발 촌에 버려진 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구조된 아이였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떠난 곳에서 개 한 마리가 주인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민이는 주인을 기다리는 듯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밥 주는 사람도 없어서 언제 줬는지도 알 수 없는 다 썩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쓰레기더미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눈에도 여러 날 동안 방치되어 보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지만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민이를 보니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린 외모여서 어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이는 의외로 많았지요. 이미 율니가 모두 발치된 상태였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발치를 했다가보다는 누군가가 고의로 발치한 듯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작고 마른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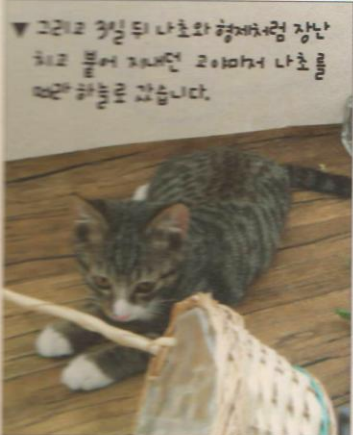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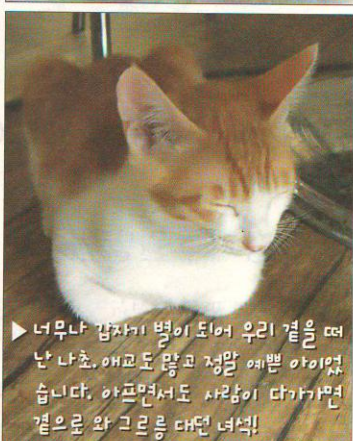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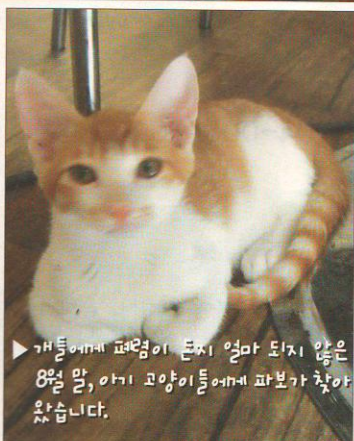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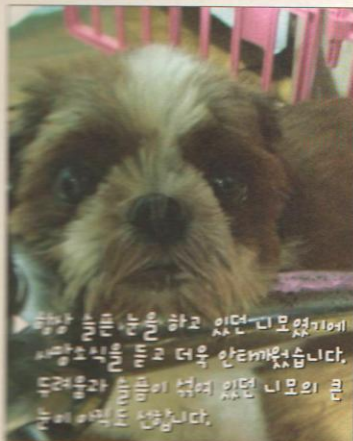
주변에서 이사를 가면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분양을 하거나, 유기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키우던 반려동물이 좋은 사람에게 입양을 가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셨는지요. 아마 민이처럼 힘겹고 비참한 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함께 생활해오던 반려동물을 오래된 가구 버리듯 버리고 가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이는 구조된 이후로 심장사상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무실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사람들의 손길과 관심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먼저 사람을 반기지는 않지만 하루가 다르게 민이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낯선 환경과 다른 개들을 두려워하지만 아무 탈 없이 행당동 식구가 되어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가기를 바라봅니다. 🐾



8월이 된 아이들을
추모하며...

Photo
행당뉴스





후원해 주세요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자연의 어우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 삶의 질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기도 하고, 많은 수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정서가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간의 식생활과 생활용품, 오락, 의학, 과학 개발의 현장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이용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론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인간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고통을 호소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동물들의 절규, 끝 간데 없는 동물 이용. 우리는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한 가치 사회를 구현해나가는 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부당한 처우와 고통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계좌 _ 국민은행 806201-04-005468 / 농협 015-17-002592

정기후원방법

- 이 면을 작성하여 절취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http://animals.or.kr>로 접속하셔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2-2292-6337, 팩스번호 02-2292-6339 (전송 후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휴대폰 _____

주 소 _____ 전 화 (집/회사)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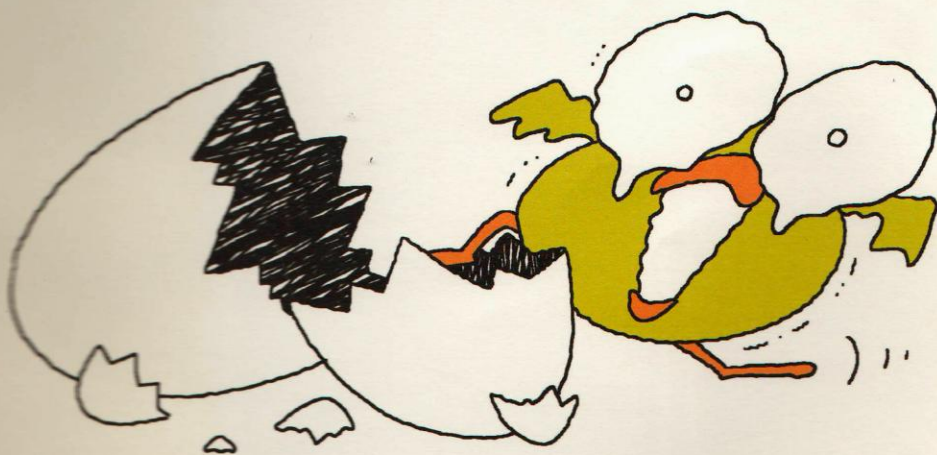
자동이체계좌번호 _____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기재 _____

후원금액 _____ 자동이체 날짜 _____ 5일 ■ 14일 ■ 23일 ■ (확인 요망)

* 우리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돌아갈래~!



※ 앞으로 달걀 구입하실 때에는 동물 복지형 달걀인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을 빼앗아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소외된 약자에 대한 분배의 자비심입니다.

함께 나누는 삶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T 02-2292-6337 F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1년 11월 21일 편집 · 진 행 박연주 교정 · 교열 이정애
계간지 / 2011. 가을호 등록번호 성동바 00007 www.animals.or.kr 디자인 · 제작 동방기획(02-2277-0365)